

# 韓國 古典大河小說 研究

——李氏世代錄을 中心으로——

金 鎮 世\*

## 一. 序 言

朝鮮朝 後期의 作品으로 推定되는 이 李氏世代錄은 이론바 樂善齋本으로 現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6권 26책이 한 秩인 이 작품은 한글 宮體 草書로 써어진 筆寫本으로 각冊은 32.5×21.3의 無廓 無絲欄에 半葉이 10行이고 每行은 16字~26字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 한글소설의 大部分이 그렇듯이 이 樂善齋本 한글소설도 그作者와 創作年代 그리고 現傳하는 筆寫本의 轉寫年代조차도 알 길이 없어 아쉽다.

本研究에서 筆者는 먼저 이 작품의 梗概를 밝히고 다음에 이 작품의 連作關係와 作者에 關한 問題를 살핀 뒤, 끝으로 이 작품에서 염어볼 수 있는 當時人들의 思考의 一端인 孝와 綱常에 대해 考察해 보려고 한다.

## 二. 梗 概

明나라 正統年間이다. 부마도위 하람공 이몽천은 계양공주와 장부인 등 두 아내 사이에 10子 5女를 두게 되었다. 長女 미주소저를 보게 된 철공자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祖母 경부인에게 그 일의 주선을 간청하였다.

\* 國語國文學科 教授

이 말을 들은 하람공은 그것을 반대하였으나 그의 父親 李丞相은 結義한 누님의 請을 저버리지 못하고 그 婚姻을 이루도록 일렀다.

추밀사 노강의 次女와 定婚한 홍문은 노소저가 못생겼다고 잘못 알고 그녀와 結婚하지 않겠다는 글을 남기고 家出을 했다. 그는 洞庭湖에 갔다가 양공과 만나게 되어 그 집에 머물게 되었다.

양공은 딸 난화의 配匹로 홍문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홍문은 그가 엄은 초상화의 主人公이 양소저임을 알고는 그녀를 欲慕하게 되었다.

양공이 그 딸로 請婚을 하였을 때 홍문은 父母의 許諾를 생각하였으나 이왕 不告出하였으니 하고는 그녀와 結婚하고 말았다.

노소저와의 吉期가 지나자 홍문은 양소저와 期約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저지른 일을 알게 된 하람공은 不孝子로 宗統을 잊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문정공 등 아우들이 홍문이 어린 탓이지 綱常罪人은 아니라며 두둔하였기 때문에 그는 笞杖 30을 맞고 용서를 받게 되었다.

양공의 上京으로 홍문이 부마의 아들임과 홍문의 聘父가 양공임이 밝혀져 李氏家에서는 이들의 婚事를 諒解하게 되었다.

홍문은 科學에 壯元을 한 뒤 노소저와 成婚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情을 보내지 않았다. 노소저는 이 恨을 풀기 위해 計巧를 꾸몄다. 그녀는 侍女 옥교로 하여금 양소저와 남생이 서로 情을 通하는 양 꾸몄으나 홍문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유부인 生日날 술에 毒을 탄 事件이 생겼다. 옥매가 매를 맞고는 양소저의 분부로 그랬노라 했고 또 양소저는 그 일을 남생과 상의했다고 했다. 부마가 그녀를 옥에 가두고 檢核하려 하자 옥교는 몰래 그녀에게 潛入하여 그녀를 毒殺하고 말았다.

양소저가 綱常罪人으로 몰리자 노씨는 홍문의 巾櫛을 맡게 되었다. 그래도 노씨는 行計를 繼續하다가 疑心을 품고 있던 홍문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李氏家에서 쫓겨난 그녀는 嘘風呼兩하는 衛을 가졌다라는 혜선을 만나 원수를 갚겠다며 그녀를 따라갔다.

景泰 때 遠竄되었던 여현기가 皇上의 부름을 받아 京師로 올라오다가 도적을 만나 딸 빙난소자를 잃게 되었다. 京師에 도착한 그는 문정공에게 딸의生死가 不明함을 말하고 딸과 定婚하였던 성문을 다른 곳으로 成婚토록 말하였다.

임상서가 성문을 보고 相親하기를 願했다. 문정공은 여소저와의 關係를 말하고 그녀가 돌아오게 되면 그녀를 上元으로 하기로 하고 그 請婚을 許諾했다.

父母와 分散하게 된 여소저가 男裝으로 上京하다가 뉴간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뉴간은 그녀가 자기의 딸과 結親하기를 원했다. 그것을 拒絕한 여소저는 도적으로 몰리어 곤욕을 겪고 있던 차에 마침 이어사(성문)가 그곳을 지나다가 그녀를 救하게 되었다. 이어사가 姓名을 밝히고同行함을 提議했을 때 그녀는 內心 놀랐으나 함께 上京하였다.

옥난의 獄로 남창에 遠竄을 당한 소부인은 그곳에서 경문을 낳았는데 그만 도적에게 잃게 되었다. 경문은 유영걸의 아내 김씨에게 넘겨져 현명이란 이름으로 자랐다. 김씨가 죽자 그는 繼母 각정의 구박 속에서 生活해야만 했다. 上皇이 돌아오자 유영걸은 지난날의 虐政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때 현명은 登聞鼓를 울려 아비의 죄를 벌었다. 유영걸은 流配로 減刑되었는데 이때 각정이 모든 財產을 팔고 떠났기 때문에 현명은 외롭게 고향에 남게 되었다. 그는 困境을 克服하면서 讀書를 했다. 이무렵 그는 동왕각에서 놀다가 어사 이성문과 사귀게 되었는데 이어사는 잃은 자기 동생과 비슷하다고 느끼며 情을 나누었다.

分散 三年만에 여소저가 父母 앞에 나타났다. 이성문의 도움으로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음을 多幸스럽게 여겼다. 여소자 부인 경씨는 딸을 성문에게 보내는 것을 反對하였으나 여공은 信義를 저버릴 수 없다면서 李氏家와의 結婚을 서둘렀다. 여소자는 言行이 바르다고 칭찬을 받으며 지냈다. 그러나 그녀가 歸寧하였을 때 딸의 臂紅을 보게 된 경부인은 딸의 不幸을 말하며 한 바탕 소란을 피웠다. 이것이 빌미가 되

어 여소사는 하람철도사로 평직되었다. 이때에도 경부인은 고집스럽게 딸을 데리고 가다가 三日만에 大風을 만나 그만 딸을 잃게 되었다.

위상서의 딸 흥소는 어려서 물에 빠져 父母를 잃고 원용에게서 자랐다. 그녀가 자라자 원용은 그녀를 현명에게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거절하였고 父母를 찾기 전에는 결코 몸을 허락지 않겠다고 하매 현명은 그 뜻을 받아주기로 했다.

위공은 강주에서 善政을 베풀면서 행패를 부리던 유영결과 각정을 다스렸다. 이 消息을 들은 현명은 그곳으로 달려가 아비에 대한 尬待를 따졌다. 강주땅에 도적이 일자 그것을 平定하려고 문정공과 이안무가 그곳에 갔다. 征南大元帥와 李按撫는 현명과 힘을 합쳐 쉽게 그 땅을 平定하게 되었다. 그 論功에서 문정공은 연왕의 爵號를 받게 되었고 현명의 父 유영결은 放免 復權이 되었다.

여소자는 물에 빠졌다가 女僧에게 구제되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女僧이 그녀를 호공자에게 넘기려 하매 다시 물에 몸을 던져 그禍를 피했다. 이때 李按撫가 船遊를 하다가 한 屍身을 건지게 되었다. 그는 그것이 자기 아내임을 알았다. 그녀가 회복이 되고 또 李按撫가陞任되어 京師로 돌아왔다.

謁聖科가 있어 京師에 온 현명이 壯元에 뽑혔다. 進退時 그를 본 사람들은 모두 그가 연왕과 酷似하다면서 이상해 했다.

이에 앞서 각정은 위소저를 도청에게 넘겨주고 財貨와 被服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 事實이 婦子들을 통해 위소저에게 전해져 그녀는 그곳을 빠져 나왔다.

李尚書(성문)가 科舉를 팔았다는 현애의 말은 마침내 舌禍를 불러 일으켰다. 이상서는 한 때 拿囚되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풀려났지만 世上을 시끄럽게 했다는 사유로 脫職되었다.

한편, 현애가 皇上의 恩惠를 입어 감찰어사에任命이 되자 현명은 각정과 현애 사이에 끼어 고단하게 지내면서 가끔 李氏家를 찾아 마음을

달렸다. 각정은 현명을 끓어두기 위해 그녀의 조카딸과 成婚케 했다. 그러나 현명이 月餘토록 각소저와 가까이 하지 않자 그들은 여러가지 方法으로 그를 괴롭혔고 나중에는 毒藥으로 害하려까지 하였다.

이러한 生活 속에서도 그는 위소저를 잊지 못했다. 연왕부에서 있은 詩會에서 그는 醉中 위소저를 思慕하는 글을 지었다. 이때 위공은 그가 말하는 그 女人이 或 자기 딸이 아닌가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行止가 연왕과 닮았다 해서 李氏家에서는 또한번 경문을 생각하였다.

각정과 현애의 計巧에 말려든 현명은 庶母를 犯하려 했다는 綱常罪人으로 몰렸고, 父親과 아우를 殺害하려 했다는 罪目으로 投獄되기도 하였다. 上의 親鞠으로 그는 無罪임이 들어났음에도 父親의 罪科가 모두 자기 때문이라 하면서 자기를 다스려 주기를 원했다.

유현명의 流配길에 현애가 刺客을 불였다. 그 刺客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生捕되며 그것이 유감찰의 使嗾임이 들어났다. 그러나 현명은 아우의 허물을 들어내지 않으려고 그를 放免하고 말았다.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던 위소저는, 현명이 遠竄되던 中途에서 도적을 만나 危險한 지경이라는 말을 듣고 운사에게서 약을 얻어 그를 구했다. 몸이 회복되자 현명은 그녀에게 親事を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君子가 罪人이니 天命이 있는 날 다시 만나리라 하면서 현명을 떠나갔다.

이학사가 절강에서 순무할 때 商人們에게서 경문에 대한 말을 들은 일이 있었다. 그는 京師에 돌아와 연왕의 허락을 받고 남창으로 경문을 찾아 나섰다.

현명의 꿈에 김씨부인이 나타나 그가 자기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兄이 곧 예리려 올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현애가 자기의 木主를 버렸으니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때 그곳에 이상서가 나타났다. 그들은 여러 모로 지난날을 추적하여 현명이 경문임을 確認하게 되었다.

이 무렵 위소저는 군산에서 유모를 만나게 되었고 또 자기가 위승상의 딸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위치사의 도움을 얻어 京師로 돌아왔다. 위승상은 딸의 지난 일들을 듣고 자기와 유현명이 結怨間이라는 것과 그가 流配 中에 있음을 아쉬워 했다. 위승상은 곧 연왕을 찾아가 월었던 딸을 찾았음과 그녀가 경문과 夫婦가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자기와 경문과의 사이를 조정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승상에 대한 경문의 원한이 굳음을 안 兩家에서는 위소저를 위부마의 딸이라 속이고 경문과 成婚케 했다. 신부가 지난날의 위소저임을 알게 된 경문은 위부마를 찾아가 자기를 속인 까닭을 따졌고 또 위승상에게 대한 感情을 독발시켰으나 그들은 서로들 어렵사 父母를 찾은 터이기에 연방과 위승상의 당부에 따르기도 했다.

太子妃 뉴씨가 昇遐하자 捷擇令이 있었는데 이때 上은 일주소저를, 皇后는 조소저를 생각하였다. 이에 上은 두 소저를 다太子妃로 하고 皇孫을 먼저 낳는 사람을 原妃로 삼기로 했다.太子는 처음 조씨에게 情을 두다가 차차 李妃에게로 情을 옮기게 되었다.

李氏家에서 鄙去된 노씨가 흥문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며 백문의 아내가 되기를 원했다. 이에 혜선은 그녀를 變身케 하여 백문의 定婚女 회소저에게 팔았다. 백문은 회소저와 結婚하였으나 그녀는 멀리 하고 화도(노씨)와 무절제한 生活을 하였다.

백문은 父兄의 눈을 피해 科場에 나아가 莊元을 하였다. 그러나 연왕夫婦는 그를 眼前에 용납지 않았다. 백문은 그것에 거리낌이 없이 무절제한 生活을 繼續하기에 여왕은 그에게 笞杖을 加하여 嚴하게 끄적었다. 그러자 백문은 이러한 모든 것이 화소저 탓이라 생각하고 그녀를 원수롭게 생각하였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노씨는 혜선을 불러 화소저 내칠 계규를 물었다. 혜선은 화소저가 흥문에게 글을 주는 양 구였다. 이것을 본 백문은 그兄이 못다땅함을 虑에 보이도록 나타냈다. 禮部는 그것이 자기의 厄運

이라 自認하고 관대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백문을 나무랐다. 그러나 백문은 혁양어사에 任命되어 곧 그곳으로 떠났다.

노씨가 鑄寧하여 그간 일을 말하자 시어사 윤혁은 그러한 일은 謙官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그것을 上奏하였다. 上이 禮部를 下獄케 하고 問招한 결과 그것은 事實無根임이 들어났다. 그러나 上은 그것이 綱常과 關係가 되는 醜聞이라 하여 禮部의 官職을 삭탈하고 流配하였고 화소저도 移圍토록 했다.

화소저는 유배길에서 노씨가 보낸 사람의 禍를 만나게 되었다. 사정이 급하자 그녀는 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去年 失言으로 성노를 만나 항주자사로 밀려난 화자사에게 救出되었다. 화자사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딸을 숨기고 지냈다. 그녀를 護行하던 몽평의 기별을 들은 李氏家에서는 모두들 그녀가 죽은 것으로 알고 지냈다.

한편 노씨와 혜선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경둔을 害하려다가 조소저는 죽이고 태부는 殺害치 못하였다. 그러나 조소저의 父親 조훈이 그것을 訟事하는 바람에 경둔은 태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 이들은 또 윤혁으로 하여금 위승상과 임병부가 謂逆을 피하였다고 告變케 했다. 이때 세문과 거문도 연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上은<sup>1)</sup> 이들을 逆賊으로 看做하고 베려고 할 때 백운산의 익진관이 나타나 그들이 忠臣임을 말하고 몸을 하늘로 솟으니 上은 그 뜻을 받아 임계운은 서축 성도에 安置하고 위공부는 행주에 定配하고 세문은 광서 별가를 하여 내치고 거문은 삭진하여 門外에 鄐送하였다.<sup>2)</sup>

임소저는 조훈이 보낸 家丁의 禍를 피하려다가 법에게 물려갔으나 운화산 바위 틈에서 놓여나 그곳에서 生命을 부지하고 있었다.

- 
- 1) 李樹鳳교수는 “익진관이 그의 제자 금당과 함께 편되 앞에 나타나 임 위 양공을 살리라고…”하였는데 이 편되는 편도에 主格助詞 ‘이’가 붙은 것으로 皇帝(上)를 말하는 것이다.
  - 2) 李樹鳳교수는 “세문은 광서 별가를 해 내치고 거문은 삭진의 출송하고…” 라 하였는데 이것 또한 잘못 읽은 것이다. 이것은 “削職 門外 鄐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무렵 백문은 노씨를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父親께 지난날의 과오를 빌었다. 그러나 그는 母親에게까지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러자 兄이 그를 데리고 父親께 나아가 함께 사죄를 했다. 父親은 그를 결박하고는 昏絕할 때까지 答杖으로 다스렸다. 개국공은 그가 회심했음을 말하고 거두어 두도록 했다.

노씨는 백문이 멀어짐을 애닮아 하나 그럴수록 백문은 화소저에 대한 죄책감으로 회한의 나날을 보냈다. 연왕 夫婦가 살아 있는 限 백문을 돌이키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자 노씨는 그들을 害할 決心을 하고 妖穢之物을 연왕전에 묻었다. 尚書는 그곳에 이상한 기운이 있음을 發見하고 그 저주물을 파냈으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혜선이 다시 그것을 하다가 發覺이 되어 그 真相이 드러나게 되었다. 연왕은 그것이 綱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上表하고 闕下에 나아가 석고대죄를 하였다.

항주자사 화진이 表를 올렸다. 조훈이 위소저를 자기의 美姬로 삼으려고 겁침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이때 윤혁이 그것을 두둔하자 上은 大怒하여 노강을 北極 海邊에 충군하고 조훈을 東海에 위리안치하고 백문을 항주에 감사하라고 명한 뒤 八道에 榜을 붙여 노씨를 찾게 하였다. 이렇듯 事件이 밝혀지자 이홍문, 임계운 그리고 위공부 등이 伸雪이 될 뿐 아니라 이홍문은 禮部尚書 左僕射에, 임계운은 추밀사에, 위공부는 광록태우에 그리고 이경문은 左參政 太師太傳에 각각任命되었다.

형주자사가 啓文을 올려 우태양의 作變을 말하였다. 이때 연왕이 出征을 自願했고, 경문이 先鋒, 성문이 副元帥가 되었다. 우태양은 이동창이 맹음을 듣고 주저하였으나 部下들이 決戰을 主張하며 환술을 부리며 對敵하였다. 경문이 符作으로 그것을 막으니 그는 도망을 치다가 홍문이 이끄는 水軍에게 生捕가 되고 말았다.

연왕은 틈을 내어 화공을 만나 懷抱를 풀며 자식 잘못 가르친 罪를 빌었다. 그리고 화소저의 存亡을 물었으나 화공은 그것을 모르는 척했다.

大元帥가 上京次 운화산을 지나다가 울고 있는 난혜를 만나게 되었다. 위소저는 身病으로 다 죽어 있었다. 태부는 익진관에게서 얻은 藥으로 그녀를 회복시키고 함께 上京했다.

復命을 하는 자리에서 흥문은 지난 일이 백문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였다면서 그 죄를 빌었다. 이에 上은 그것을 알고 있으나 연왕이 고집을 부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그 아비가 功勞를 사양하니 그 대신 아들을 사하리라 하고 백문의 上京을 허락하였다.

개국공의 次子 팽문은 방일하였다. 그는 소후의 嫪兒 소운에게 갔다가 한 아름다운 소저를 보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았다. 이 일로 소씨 집 안에서는 야단이 났고 개국공도 答杖으로 그의 과오를 징계하였다. 연왕은 이 일의 仲介者로 나서서 팽문과 그녀를 結婚시켰다.

오래동안 화공을 뵙지 못한 능후(경문)가 화공에게 잘 때 백문을 帶同했다. 능후는 그곳에서 男裝한 女人을 보게 되었고 그녀가 화소저임을 알았다. 그는 집에 돌아와 兄들과 상의 끝에 그 사실을 백문에게 가르쳐 주었다. 백문은 곧 화가에 가서 소저 숨겨 둘을 따졌다. 화가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그는 계속 그곳에 갔다. 그러면 어느날 그는 화수찬의 아들에게서 화소저가 거처하는 곳을 듣게 되었다. 백문은 화소저의 손을 잡고 지난날의 失手를 빌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문이 그곳을 떠나지 않자 화공은 그 사실을 연왕에게 통보하고 백문을 데려가도록 請했다. 그러나 그는 答杖을 맞으면서도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가 答杖으로 쓰러지자 화소저도 하는 수 없이 그를 구완하였고 그녀의 母親 양부인은 手書를 닦아 화소저를 李氏家에 보내기로 했다. 그래도 화소저는 父母께 不遜한 사람과는 生活할 수 없다면서 그의 앞에 나타나려 하지 않았다. 그는 婚書를 불질러 없애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집으로 召還된 백문은 그가 저지른 罪科에 대해 甚한 꾸증을 들고 禁足令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兄들의 눈을 피하여 화부에 가곤 하여 화소저를 우격다짐으로 몰아부쳤다. 그 일로

그는 다시 筇杖을 맞고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病이 危急하다는 消息을 들은 화소저는 하는 수 없이 舅家로 돌아왔다. 그는 곧 病席에서 일어났다. 소저의 용서를 받은 백문은 화부에 가서 그가 저지른 지난 일들을 정중히 사과하였다.

위소저가 生女하였을 때 능후는 獨處를 하고 있었다. 그는 위소저의 失言을 빌미로 各處하고 있었으나 소저는 자기 父親께 욕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하여 男便과 맞서고 있었다. 이 冷戰은 오래 繼續되어 新正이 되어도 그녀를 歸寧시키지 않을 程度였다.

皇帝가 昇遐하고 太子가 即位하여 成化라 했다. 이때 백문을 兵部尙書로 불렀으나 그는 自身의 옛 罪科를 내세워 나가지 않았다. 上이 노하여 그를 南方諸道接察로 내몰았다. 이때 노씨가 사화를 만나 흥영과 다시 제교를 꾸몄다. 이들은 현애를 만나 情을 나누다가 마침내 함께 지내며 또한 無賴輩와 野合하여 城을 빼고 勢를 넓히려다가 李接察과 마주치게 되었다. 현애는 노씨를 데리고 逃走하였다가 生捕되어 處刑되고 말았다.

연왕의 三女 월주소저는 정광과 成婚하였다. 정광은 놀기 좋아하고 글을 읽지 않아 無識하였다. 妻男들에게서 무식하다는 구박을 받게 되자 그는 朝門不出하고 아내에게 글을 배웠다. 正統皇帝의 三喪이 끝나고 科場이 열렸을 때 그는 壯元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父母를 失離한 편주소저는 왕참정의 종인 윤파에게서 자랐다. 그녀는 왕소저의 侍女로 있다가 왕생의 눈에 띄게 되었다. 왕생은 여러가지로 편주를 팝박하였으나 그녀는 끝까지 貞節을 지켰다. 그녀는 어렸을 때의 일들을 어렴풋이 記憶하고 있었다. 왕소저의 男便인 이형문이 그녀의 말을 듣고는 편주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賴良이 되어 돌아가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왕생과 成婚하였다.

出產이 없던 조貴妃가 後嗣를 祈願하다가 흥영과 만나게 되었다. 흥영은 조貴妃를 피어 皇后와 上을 이간하였다. 그들은 황후와 연왕의 글씨를 본떠 太子로 上을 삼고 攝政을 하도록 하자는 內容의 글을 上이

보도록 꾸몄다. 이 作變으로 上은 李氏家의 老少를 모두 投獄케 했다. 양각노, 위승상 등이 연왕의 忠誠心을 謙하였으나 上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 이때 위소저가 登聞鼓를 울리고 血書로 上疏를 하였다. 이에 上은 그들의 罪科를 덜고 그들을 田里에 귀양토록 했다. 조귀비는 다시 계교를 부려太子를 下獄케 했다. 이에 모든 臣下들은太子의 大孝를 말하며 闕下에서 대후하였다. 그때 太州의 은사 익진관이 上께 謁見하고 皇后寢殿에 숨어 있는 妖僧을 잡아 大事を 바로잡을 것을 아뢰자 上은 그의 말을 쫓아 요승을 잡고 모든 것을 밝히게 되었다. 上은太子의 손을 잡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쳤다. 그리고 곧 禮部尚書를 太州에 보내어 이승상과 연왕 그리고 황후를 護送하도록 했다. 그리고 上이 親히 皇后를 만나 한 때의 厄運임을 말하고 還宮토록 했다.

이승상이 年老하여 致仕하자 흥문이 승상 추밀사가 되었고 성문은 각노 초국공이 되었으며 경문 또한 각노가 되는 등 李氏家의 榮福은 계속되었다.

그 뒤 유부인이 老患으로 자리에 눕게 된 후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三年喪이 지나자 上의 부르심이 성화같아서 李氏家一行은 다시 京師로 돌아왔다.

그뒤 희원 희천 등의 說話는 李氏後代麟鳳雙系錄으로 이어진다.

### 三. 連作問題

朝鮮朝 後期의 한글본 소설작품에는 이른바 連作形態의 作品들이 있음을 이미 말한 바 있다.<sup>3)</sup> 그런데 이 李氏世代錄이란 작품도 雙釧奇逢이라는 작품에서 連結이 되어 있다. 雙釧奇逢의 末尾와 李氏世代錄의 初頭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보인다.

3) 拙稿, 玄氏兩態雙麟記研究, 서울大學校 教養課程部 論文集(4) 1972, p. 97.

拙稿, 李朝連作小說研究, 서울大學校 教養課程部 論文集(5) 1973, p. 69.

拙稿, 雙釧奇逢研究, 冠嶽語文研究(1)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76, p. 34.

문경공 제조와 하람공 제조의 손적이 더 괴특호덕 이 전이 너모 지리호니 별 전을 달워 후세에 전호리라 하고 니시세더록을 지어 흥문 등 형제와 성문의 손 형제의 수연과 경문의 본부모 촉던 일이며 하다 괴기호 손적이 세더록의 다 조시 있느니라(雙釧奇逢卷十八)

호길국치 고금의 무쌍호 군조숙네로더 기동 특이호 거순 하람공 제조와 문정공 조네리라 하람공 등 손적이 빵천기봉의 잊고 이 넌은 그 조손의 말을 괴록호매 조서티 아니하니 후인이 조시 누리보와 알디이다(李氏世代錄 卷一)

以上의 記錄으로 우리는 叢釧奇逢과 李氏世代錄이 連結되어 있는 작품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다가 李氏世代錄의 末尾에는 또 다음과 같은 部分이 있다.

면되 놓흐나 잇지 슬피미 쇼쇼치 아니리오 희원 등의 손적이 만호덕 이 면이 너모 지리호 고로 다시 냇지 못하고 쌩으로 면을 무어니니 명월 니시후티닌봉상 제록이라 하니 회라 조고로 소통의 조흔이 만코 현달호느니 니승상 명국공 가등가 튼니 업슬지다 천츄의 괴이호 일이 아니리오…희원이 한미 만난 수연과 회현이 뉴홍의 너 현옥의 쿠호야 꾸경의 손연이며 그 누의 옥쇼의 손적이 난봉 방계록의 있느니라(卷二十六)

이 記錄으로 우리는 이 李氏世代錄이 李氏後代麟鳳雙系錄으로 連結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李氏世代錄이라는 작품은 叢釧奇逢에서 連結이 되었다가 다시 李氏後代麟鳳雙系錄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三部作 가운데의 두번째 작품에 該當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筆者は 아직 이 李氏後代麟鳳雙系錄은 얻어보지 못하고 있다.

#### 四. 作者問題

작품을 연구함에 있어서 작자에 대한 考察이 상당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古典小說은 작자 未詳의 경우가 많아서 작품의 연구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음도 또한 사실이다. 그

런데 朝鮮朝 後期의 소설 작품에는 작자와 關聯지위질 듯한 内容이 그 작품안에 記錄되어 있어서 注目을 끈다. 李氏世代錄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술프다 중원 사름이 본터 갑 볶기를 위호야 아조 근본 업순 말노 칙을 무어 후리 무식녀류의 눈을 봄하니 니시 제인의 힘계 수취의 오를진더 던류의 아름 담지 아니리오마는 간신이 수험으로 인호야 농술호미 방제곡경을 이럿듯 고록 혼 수연이 민멸호를 앗겨 모년모일의 나 뉴문당은 근서호노라(卷二十六)

이 記錄을 믿는다면 이 李氏世代錄은 뉴문당이 지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雙鉗奇逢에는 이와는 또다른 記錄이 있어 우리를 어렵게 한다.

이써 승상 막하 고실 뉴문한이 나부 일괴를 맛타 혼니…뉴문한이 인호야 죽은 후 나부 일괴 벗긴 거시 뉴문한의 조손의계가 능려가더니……뉴문한의 늑더손 뉴형이 쏘호 한님슈찬으로 훈가지로 잇더니……뉴형이 설문의 용심을 무상이 넉여 힘빼 헐뿌리니 설문이 노호야 진거등을 촉호야 뉴형을 양꿔 원찬혼니 뉴한님이 분을 먹음에 양꿔 나른려 모옥을 짓고 일월을 보니며 심하의 니승상 명망이 후세에 싸디를 혼호야 그 선조 뉴문한의 세친 나부 일괴를 내여 그 가운더 고이호 말만 셜혀 전을 지으니……뉴한님이 그 배를 탄복하고 곱오티 문정 공 제조와 하람공 제조의 수역이 더 거룩하되 이 전이 너무 자리하니 별전을 널워 후세에 전호리라 혼고 니시세더독을 지어 홍문등 형례와 성문의 수형례의 수연과 경문의 본부모 초면 일이며 허다 고기호 수적이 세디록의 다 조시 잇누니라 뉴 위 이인이 세가지 칙을 모든 더 전호니 보느니 비록 니승상 위덕을 드러시나 이터도록 혼를 모른더니 바야흐로 고특이 내여 닷토와 벗겨 집안 보비를 숨으니라 지어 외국의가지 흘너가니라(卷十八)

이 記錄의 内容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李氏世代錄의 작자는 뉴형이어야 한다. 前記한 바와 같이, 李氏世代錄은 雙鉗奇逢의 連作物이기 때문에 그 작자 또한同一하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사실은 두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記錄이 서로 다르다 보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解釋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생기게 된다.

우리의 작품에는 이러한 類의 것들이 가끔 눈에 띈다. 이를테면 朴趾

源이 許生에 대해 말한 것과 같은 경우다. 그는 玉匣夜話 가운데의 許生傳에서

나도 역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일찌기 윤영(尹映)이란 이에게 변승업의 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부는 애초부터 유태가 있어서……허생은 끝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세상에서는 그를 아는 이가 없었다 한다. 이제 윤영의 이야기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sup>4)</sup>

고 하여 許生傳이 마치 尹映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記錄한 것처럼 처리하고 있다.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 權驛의 周生傳을 들 수가 있다. 權驛은 周生傳의 끝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癸巳年 봄에 天兵이 倭敵을 칙진 破하여 慶尚道에 까지 追擊을 하였는데 生은 仙花를 잊지 못하여 그만 病이 되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從軍치 못하고 松京에 머물고 있었다. 마침 그때 나는 일이 있어 松京에 갔다가 館驛가운데서 그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 서로의 情을 나누었다. ……그날 비가 나리기에 나는 그와 燈을 둘우면서 夜話를 繼續하였는데 그 때 그는 踏沙行이라는 글 한편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내가 몇 차례나 그 시를 읊조리며 그 글 속의 사연을 물었다. 이때 그는 그것을 감히 감추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소상히 말하고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까지 하였다. 그 시는 아름다웠고 그들의 만남 또한 기이한 것이어서 感嘆을 하면서도 佳期가 서글퍼 돌아와 그 이야기를 여기에 옮긴다.<sup>5)</sup>

또 趙緯韓은 崔陟傳에서

내가 南原방 周浦에 올아 지내고 있을 때였다. 陟이 나를 찾아와서 그 일을 위와 같이 말하고는 그 이야기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 顯末을 記錄해 두기를 청했다. 내가 그 뜻을 저버리지 못하여 그 대강을 여기 적노라.<sup>6)</sup>

라고 하였는가 하면 沈生傳에서 李鉉은

4)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열하일기(Ⅱ),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66, pp. 297-8.

5) 林明德, 韓國漢文小說全集 卷七,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0, pp. 364-5.

6) Ibid. p. 282.

余十二歲 游於村塾 日與同學兒 喜聽談故 一日 先生語沈生事 甚詳曰 此吾少年時憇伴也 其山寺哭書時 吾及見之 故聞其事 至今不忘也 又曰 吾非汝曹欲效此風流浪子耳 人之於事 荷以必得爲志 則閨中之女尚可以致 況文章乎 況科目乎 余輩其時聽之 爲新說也 後讀情吏 多如此類 於是追記爲情史補遺.

라고 하여 자신이 이 작품을 창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어렸을 때 시골 학당 스승에게서 들은 실제담을 情史에 추록하기 위해 쓴 것이라고 했고, 또 이 이야기는 學童들에게 무슨 일이든 결심이 단단하면 그것을 成就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했다.

이렇듯 얼핏 보아 作家의 實在的 自我라기 보다는 敘事的 自我로서의 轉移機能을 갖는, 마치 實話의 주인공과 이를 代行하는 俳優의 關係와 같은, 一種의 이야기를 위한 作家의 變裝術<sup>7)</sup>과 같은 것이 들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解釋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생기게 된다.

朝鮮朝의 사람들은 小說에 대한 理解가 꽤 不足하였다. 當時 사람들은 小說은 可及의 읽지 않는 쪽이 좋은 것으로 斷定하였으며 심지어는 小說을 읽는 것을 國變으로까지 생각하여 禁忌하기도 하였던 것이다.<sup>8)</sup> 이러한 狀況下에서의 作家의 자세란 그 작품에서 자신의 이름을 흐리는 것이 常識일 것이고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로는 話中話, 또는 假托的 話法 등으로 이해되는 小說의 한 技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手法은 서술자의 移動이 자연스러우며 때로는 동기적 부가물이 提示되어 독자가 지닌 현실관과 이야기가 지닌 현실관이 자연스럽게 結合함으로<sup>9)</sup> 小說에 대한 興味와 認識의 幅을 가질 수가 있다. 이와 같은 兩面을 생각하면서 雙釧奇逢이나 李氏世代錄에 담겨진 記錄들을吟味한다면 이 작품들에 기록된 것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이 우선 자연스럽게 생각된다. 말하자면 額字의인 性格을 띤 小說

7) 李在銑, 韓國短篇小說研究. 서울 一潮閣 1975, p.59.

8) 洪鳳漢, 疎齋集. 李德懋, 士小節.

9) 李在銑, 韓國小說의 解釋. 서울 새문社 1981, pp.7-8.

結構上의 한 手法으로 理解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 五. 孝 文 學

九雲夢, 春香傳 등이 創作되던 시기를 지나 玩月會盟宴, 尹河鄭三門聚錄 등의 長篇小說이 出現하면서 우리나라의 古典小說은 그 主題面에서 變化가 보이고 있다. 玄氏兩態雙鶯記를 비롯하여 明珠奇逢, 碧虛談關帝言錄, 雙釧奇逢, 嚴氏孝門清行錄, 尹河鄭三門聚錄 그리고 玩目會盟宴에 이르기까지相當數의 長篇들은 한결같이 「孝」를 強調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한 이 李氏世代錄도 한마디로 말해 孝文學의 標本이라 할 만하다. 孝에 대해서는 더 이상 說明이 必要치 않을 만큼 우리는 조선 왕조 후기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다.

사랑 철연수의 아들 수(忠正)가 하람공의 長女 미주소저를 보고는 그녀를 유의하여 보채매 祖母 경부인은 하람공에게 請婚을 하였다. 이때 하람공은 그것을 어렵게 拒絕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승상은 하람공을 嚴하게 꾸짖고 그 청혼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하람공은 자기가 몹시 사랑하던 딸인지라 內心 매우 不滿스러웠으나 늘 父親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애를 썼고 또 孝로 받들기 위하여 두말 없이 父命에 따르고 있다.

공이 우리 듯족고 모옹의 불쾌하나 삼십년을 섭섭습침하미 효를 웃듬어야는  
지라 이에 안경이 츄명 월 허의 무식하고 소견이 혼갓 일편도이 성각하여습  
더니 불기 하교하시물 듯조오니 불효지 무상호오나 엇디 봉행치 아니리잇고  
(卷一)

현명(경문)은 소부인이 옥난의 합해를 입어 남창에 遠竄되었을 때 出生하였는데 소부인이 강도를 만나 夜半에 분찬할 때 父母를 失離하였다. 그는 유영걸의 婦人 김씨에게 팔리어 그녀의 품에서 자라다가 그녀가 죽으매 繼母 각정의 손아귀에서 어렵게 자랐다. 그러나 그는 父親께 孝

誠이 지극했고 繼母에게는 恭敬스러웠으며 異腹弟에게도 友愛로웠다.

각경이 경문의 특이호를 써려 끼양해호를 모움이 이시덕……공적 시리음 각경의 독슈를 면하니 이에 이르러는 모친이 업수를 스스로 슬허호를 부으는 도시하고 각경을 공경호를 지극히 험며 현이를 우이후를 경성으로 험며 공의계 효성이 뜻잇을 듯하니 공이 지극 사랑호를 각경은 써리더라.(卷四)

景泰가 即位하자 유영걸은 예부상서를 거쳐 승상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李丞相이 다시 皇上을 세우자 형부상서 이몽원이 유영걸의 罪科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때 현명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상이 만일 호성지력을 드리오사 가친의 쇄잔호 목숨을 살오실진디 만횡이 오 그려티 아냐 죽으를 주실던덕 쇼지 등문고를 올너 죽으를 턱하리니 죄인은 고이히 너기지 마쁜쇼서(卷四)

그뒤 조정에서 유영걸의 능지처침을 놓고 朝會를 할 때 현명은 登聞鼓를 울려 그 아비의 목숨을 代身할 것을 빌었다.

제하의 업덕여 고두 뉴베 월 죄신 뉴현명은 일만번 죽으를 봐려 만세황야 농전의 경수를 고하느이다……죄신은 꽃 죄인 뉴영걸의 천호 조식이라……죄신의 아비 본디 모움이 굿디 못훈 고로 마디 못호야 경수의 니른리 국권을 잡으나… 묘당 범무를 맛쳐 슈옹터 못호야 히몽터 못호는 가온터 탐남호는 관원이 써를 타 눈의 도흔 거슬 주며 긴히 두리는 말을 신의 아비 능히 물니티디 못호여 드덕여 신청호야 죄과의 범호야 천천호여 이에 니른러시나 이 엇니 신의 아비 본심이며 스스로 흐고져 혼 배리잇가……신이 하늘을 불러 호곡호야 잠간 천호 소견을 베프옵느니 일월지명은 무처보지호오리니 원컨티 죄신의 아비 일죽 모역지죄가 아니오 다만 디식이 혼모호야 스스로 몸가짐을 아라 후디 못호야 죄의 써져실지언경 나라흔 쟈脖리미 업수오니 이 죄로 역눌노 모라 죽이시미 너모 심티 아니리잇가……신이 그 조식이 되여 촘아 안자서 팔목디 못호울디라 몸이 화호여 여성인 줄 낫고 구국원통호 경수를 만세야야 농상을 더러이노 죄 만수 무색이오 천수유경이나 인군의 성덕이 호호호며 양양호샤 초목의 니로히 딛수 오니 신이 쏘호 성상만민의 통수호야습는 고로 머리를 브티이기 통곡호느니 성상은 늙은 아뷔 혈혈호 즘명을 샤하시고 신으로 터명케 호실던디 신이 당당이 우음을 먹음고 도라가는 낙시 폐하 천축률 축원호리이다(卷八).

이에 上은 자식이 어버이 위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감격하고 유영결을 평하여 서인을 만들고 강주에 위리안치케 하는 것으로 그 별을 그쳤다.

유현애와 설최는, 유현명이 그 猶母 각정을 淫蒸하고 아비를 畸害하는 듯이 計巧를 구몄다. 이때 朝廷에서는 어떻게 處理해야 할는지를 몰라 苦心했다. 그때 유현명은 이미 孝心이 出天하기로 널리 알려진 터이었다.

이제 국가의 대옥을 당호야 신동이 소견이 업순 거시 아니로부터 진실노 소세 난처호야 아비를 울타 해매 아들이 죽을 고되 썬다고 아들을 울타 해매 아비 대역의 쳐려기물 만티 못호니 피조의 채호미 업수을더라 국가의 불행이 아니리 있고 연이나 뉴현명의 인적 출범함과 효청이 출현호문 당년 영결을 구호던 협표의 성심이 조시 아래제시니 그런 위인으로 이런 눈상대법을 아니리니 이 도시 고쉬이 상살순호던 일이 있는가 해음누니 대강 뉴영결의 비복을 잡아 저준 즉 간상이 쉬울가 乎누이다(卷八)

그는 아비를 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한님이 이색 유험무지호야 간당이 다 타 지 되는디라 기우 정신을 거두어 주 호야 곱오되 신이 무상호고 본티 미친증이 이서 삼가지 못흔 일이 만흔 고로 아하게 죄를 어드미 등한티 아니호니 아비 문호를 근심호야 텐정의 주호여 죄를 다소리미 그른니 아니호니 성상이 만민의 부회 되사 엇디 불효조를 다소리니 아니시고 강상을 정히 흐는 아비를 죄주사리있고 신이 연명을 보니여 아비를 해함도 올코 서코 음종코져 흄도 올흐니 원천티 성상은 삼목의 형벌노 죽이쇼서(卷八)

이러한 유현명의 孝心이 모든 사람들의 心肺를 울렸고 上도 또한 感激하여 그 아비를 容恕하고 유현명을 流配케 하고서 그 事件을 수습하였다.

유영결이 자기의 生活態度를 바구지 못하고 酒色에 잠겨 家產을 당진 하게 되자 모든 奴婢가 다 달아나고 오직 만충이란 奴者만이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 만충마저 죽게 되자 유영결은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그 때 유공은 현명(경문)이 平素에 孝誠스럽게 당부하던 말을 들지 않았음을 後悔하였다.

…크게 탄호야 끝오더 너 몸이 엊디 오늘날 이에 나를 줄 알니오 이제 성자 전티 경문의 말이 설설이 마자시니 너 그런 거룩한 사躬을 참혹히 박티호야 저 부리미 길고 폐경의 너 몸이 이에 니른니 뉘웃침들 드어서 유익호리오(卷十二)

경문은 지난날 자기가 父親으로 되시던 유공이 절박한 사항에 처해 있음을 알고는 그대로 넘길 수가 없었다. 그는 유공이 있는 곳을 찾아가百方으로 그 內幕을 살펴, 媚女들이 妖藥으로 유공의 財產을 갈취함을 밝히고 그것을 다시 유공에게 환원케 한 다음 자기의 不孝를 눈물을 흘리며 反省하였다.

뉴공을 보고 눈물을 흘너 끝오더 쇼지 엊디 대인의 은혜를 이대도록 저부릴 줄 알니오 금일소를 보매 쇼지 애돌오를 이기디 못할소이다(卷十二)

正室을 審하려 했다고 해서 문정공에게 離去 당한 조씨부인(庶母)에게도 경문은 孝心이 두터웠다. 이것을 안 조소저는 조씨부인을 움직여 위소저를 경문과 함께 지내지 못하도록 했다. 이때에도 경문은 서슴없이 그것을 양해하고 위소저로 하여금 庶母를 모시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조씨부인이 위소저를 앞에 두고 유통을 못하게 굽어도 경문은 전혀 그런 일에 神經을 쓰지 않았다.

이튿날 태부와 위시 문안하는 셔를 타 태부드려 끝오더 너 근너의 미양 이서 고거를 임의로 못호티 오시는 낭문이 짓만나 쟜나기를 등난이 너기니 좌와의 두디 못호고 너는 나히 낭문의 더으고 위시로 만난 디 오라니 네 가히 위시를 허호야 노모의 겨티 두게 훌소냐.(卷十三)

태부 녕망이 무러 터월 모친이 허고쳐 허실던대 엊디 쇼조드려 뭇고 허시리 오 설파의 눈을 드려 쇼저를 보와 끝오더 금일로보더 이곳의 시침호야 효봉호를 게얼리 말라 쇼제 넘임슈명호니(卷十三)

초후 도시 위시를 알찌 두어 유통을 못하게 굴더 위시 죠곰도 염고호는 스식이 업수믄 니든도 말고 효성이 출던호며 태부는 여구의 초인 줄 짐작하고 통히호나 현심 대회 심상티 아니호 고로 힝혀 묘시의 허물이 연왕의 커예 갈가 두리고 앗가 후던 말이 타인이 드물던대 결도흘 거시로터 태부는 도로혀 그 경

수를 츄연호야. (卷十三)

강주땅에 유적이 일어나 그勢가 크매 朝廷에서는 그平定에 苦心하였다. 이때 문정공이 그곳에 出征하기를 自願하였고 上이 그것을 允許하자 성문은 班列에서 나와

신이 비록 도명 빅뇨의 충수호여시나 아비 불모지다를 향호오니 인조의 모임이 안안히 못호울리라 본직을 드리고 誓와가지이다.

하고는 안무사에 任命을 받아 그父親을 따랐다.

경문과 위소저와는 그 만남부터 복잡하다. 그들은 모두들 어려서 父母를 失離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또 非正常的인 狀態에서 婚姻을 양해하게 되었었다. 그런데 위공과 경문은 그 사이가 매우 좋지 못했다. 위공이 강주에서 橫暴를 부리는 유영걸을 다스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翁婿間이 되어야 했기에 위소저를 위부마의 딸이라 속이고 成禮를 했던 것이다. 이러한 翁婿의 不便한 關係에 위소저도 不滿스러웠다. 더구나 男便이 自己父親을 육할 때 그녀는 참지 못했다.

군을 피호든 다른 연괴 아니라 오륜 가온대 부피 몬져시니 지아비 비록 등호나 부피 만일 나티 아냐 겨실던데 장촛 모어슬 알리오 군지 일죽 경서를 호호며 설소 악빈들 그 조식을 두리고 집을 어호고져 호며 가친을 노적이라 호니 텁이 다시 군을 디코져 호리오 그런 고로 종신토록 슈의심규호야 군을 보디 말고져 뜻이니 군은 도로미 인정을 훠탁호야 츠후나 날로써 안해로 아디 말디어다. (卷二十三)

쇼제 웃기슬 념의여 금오되……군조 가친을 육호 일관은 가히 항복더 아닛누니 언어 슈작고져 뜻이 이시리오. (卷二十三)

쇼제 왈 첨이 실언호 죄는 죽어도 감슈호려니와 인조지도의 츠마 군으로 더 브러 다시 화담미어로 고호리오 츠후는 첨이 상공 보기론 슈인으로 호누니 고이히 너기지 마른쇼서. (卷二十三)

조귀비와 홍영 그리고 内侍 추현의 告變으로 李氏家는 大逆罪에 물려 三族이 滅할 危機에 逢着하게 되었다. 그때를 당하여 위소저는 죽음으로

節을 지키고 孝에 나아가려 하였다.

위서 임의 큰 뜻을 먹고 성자호덕 만일 격고등문후야 존구의 성도를 엊지 못 훌진더니 또 훌 놀와 죽으미 올호니 엊지 소성을 넘너후리오 흐고 개연이 손을 뗄여 혈표를 짓고 두어 초환으로 더브러 절하의 누아갈시 쇼후 암히 가 흔성음 하후야 고호터 시시 이럿듯 망국후니 쇼첨 등인들 엊지 살 쓰시 이시리오 쇼첨이 그윽이 혜아리전터 존귀 불힐후시는 늙은 가군이 쏘호 사지 아니후리니 가군이 그로되는 늙 첨인들 엊지 인세를 뉴럼후리오 죽으미 목전의 이시니 궂후야 두릴 거시 업고 가군과 숙숙 등이 다 니옥의 잇소와 뜻을 펴지 못후옹눈지라 첨이 당들이 재영의 효를 닉어 현정의 원통훈 정승을 고호고조 흐읍누니 금일이 소성의 아조 하직이로소이다. (卷二十五)

위서 트루하고 이의 절하의 누아가 등문고를 치니 상이 이서 편면의서 노거를 춤디 듯후시더니 황휘 혈소를 올니샤 스스로 죽어 아비 죽으를 봇고와지라 후니 셔소의 간간지상이 초무 보지 못할 거시로티 상이 너성 즐칙후야 둘니치시고 시적이 넘지 못하여서 북소리 외히 올나는 듯후니 심하의 경노후사 좌우로 좁아드리라 후시니 이윽고 너지 머리를 푸리 누출 가리고 담담훈 청의를 쓰어 혼 당 쇼봉을 봇들고 예예히 거리 덴하의 다두르니……그 너지 옥제의 머리를 두드려 옥성을 놓여 주왈 신첨은 죄인 니몽창의 초조 티소마 광능후 경둔의 체라 금일 시아비의 원통훈 죄상을 무릅써 죽기를 면치 듯후미 감히 '규등의 조죄를 번거히 하야 상언후누이다. (卷二十五)

위소저는 이때 시아비가 30년 入朝하되 한 가닥 힘이 없었고 또 효성황제를 北奴에게서 救하던 일, 그 딸이 皇后인 것 등으로 절대로 反逆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點을 강조하면서 告變으로 쓰여진 그 글씨가 決코 시아비의 글씨가 아니니 추현을 거두어 주십사고 피를 토하였다. 이 마디가 聖意를 움직여 마침내 그 목숨을 救하게 되니 위소저의 孝心을 感叹치 않는 이가 없었다.

以上의 몇 가지 例로써 우리는 우리의 古典小說(長篇小說)이 孝를 強하게 내세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社會가 小說을 꺼려하였음에도 그것이 이렇게 强하게 孝를 말하고 있음은 小說이 벌써 이야기책만의 구실이 아니라 士大夫家의 한 修身的인 役割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六. 綱 常

조선조 후기의 장편소설에서 우리는 그것들이 孝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綱常에 대해서도 言及을 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노소저와의 吉期를 며칠 앞두고, 그녀를 酒物로 誤判한 하람공의 長子 흥문이 家出을 하고 父母의 承諾도 없이 양소저와 成婚을 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하람공은, 그를 綱常을 어긴 罪人으로 취급하여 繼後 치 않겠다고 했었다.

도위 왈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공신묘예로 혼처대신의 집이라 선조 적덕이 등호사 조부와 야야곳통신 성덕이 년호야 나샤 가문을 홍호시티 우형의 불효하며 그 후를 나오미 조못 가티 아닌디라 숙야 궁궁업업하다 조선의 죄를 어들가 두리더니 과연 불효인 흥문의 죄목 소설이 여초하야 죄악이 크게 창누 희여시니 일노빠 대종을 밧들미 가문의 욕이 나르고 조중신녕이 불평하실디라 이제 폐하고져 흐느라. (卷二)

그러나 문정공을 비롯한 모든 아우들은 흥문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判斷力이 없이 그러한 過誤를 저지른 것이라 했고, 승상도 또한 그렇게 認定하였던 까닭에 笞杖三十의 징계로 그쳤던 것이다.

유부인의 誕日에 노소저의 獻酒를 받아마신 부인이 홀연 혼미하여 업더지고 말았다. 이 事件은 綱常을 犯한 것으로 李氏家에相當한 波瀾을 던졌다.

문정공이 텅파의 돈죽실식 왈 쇼메 뜻이 당초 이런 강상의 변이 일석의 날 출 아디 못하고 말이 양시피 년누홍가 불횡하야 저주를 느ழ고져 흐더니 (卷三)

공이 목연하다가 딕왈 불서 아는 일이로더 근본을 쳇기 어려오니 남성과 양시 다 인륜죄인이라 두 벗의 주식을 그릇 맹글고 장초 디하의 어느 면목으로 보며 이 말이 쏘 와간의 날던더 뒤론이 크게 어즈러워 시비곡덕을 아니 못하고 경위에 웃는 날은 큰 일이 나리니(卷三)

이 事件의 真相이 밝혀지고 그 主謀者를 索出한 뒤 그 處理를 問議하였을 때 丞相은 노소저의 鄙去를 서슴치 않았다.

승상이 곧오터 홍의 영오호미 이러듯 공교호 일을 발간져 복호미 편시간 일  
우니 고이호미 승어부로다 쳐티호를 엊디 날드려 무르리오 투기는 칠거의 잇기  
늘 호를며 당당호 소족부네 이러듯 음용호 계교로 경실을 해호니 잠시나 집의  
두리오 노공을 불러 이런 일을 나르고 출거호미 가토다. (卷三)

작정과 그 아들 유현애는 오래전부터 유현명을 없애려 했었다. 현애는  
兄인 현명의 名望이 朝野에 높고 家門大宗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을 꺼려  
그丈人인 설최의 計巧를 받아 그兄을 害하려 했다. 그는 현명이 庶母  
작정을 음증하고 父親을 毀殺하려 했던 것처럼 꾸며 현명을 綱常大罪로  
몰았다.

이서 현이 한님을 유인호야 제 어미 방으로 보닌 후 급히 시현의 가 올며 혼  
오더 형이 무고히 모친을 겁틱호니 이 경히 위급호엿습는더라 대인은 셀니 가  
보쇼서……뉴공이 분한이 풍격호야 급히 드리드라 박초고 곧오터 불초지 음증  
부첩호고 필경의 어터로 가려 호뇨……작정 월 금일지소는 강상의 대변이라 노  
애 진실노 고장호려 호시누니잇가……뉴공이 이서 영명의 토소와 현이의 어리  
오는 말을 듯고 분호 고운이 하늘고트여 곧오터 육지 이러듯 강상을 대범호니  
초는 난신격지라 너 흘노 다술일 배 아니니 당당이 유소의 브터 왕법을 경히  
흐리라. (卷八)

작정의 煽動으로 유공은 현명이 綱常을 大犯한 亂臣賊子로 알고 訴狀  
을 올렸다. ·

뉴뢰 이조를 두어 당조 현명이 일죽 그 모를 상호고 험실이 어려서봇히 쾌악  
불축호터 어른모져 무이호미 조못 과도호더니……작야의 술을 과취호고 그 서  
모를 음증코져 혼다가 듯지 아니호니 크게 터 즉금 반성반소등 이시며 작야의  
도적 니연명으로 노부를 죽이려 혼다가 험형으로 쳐근 아들의 구호를 넘고……  
즈고로 아비를 모살호문 만고의 대역이라 늙은 몸이 아모리 터티호 줄 몰나 법  
부의 고호누니 모로미 쾌조를 잡아 간상을 사획호시고 오형으로 다스려 그 슈  
족을 수방의 천호야 그 후 사통을 경계호쇼서. (卷八)

이처럼 이 사건은 크게 擴大되어 마침내 上이 親鞫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노씨와 혜선의 계교에 말린 백문은 아내인 화소저가兄인 예부(홍문)와 通情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들을 仇讐로 置簿하고 있다가 하람공에게 그려함을 털어놓았다. 이 일로 李氏家는 몹시 시끄럽게 되었다.

남공이 승상 알휘 나아가 슈발을 조시 고하니 승상이 텅필의 대경월 츠는 심상호 변이 아니라 장초 엇지 후리오 요인의 작변이 무비하니 그만하야 이길 길히 업서 반듯시 퇴간을 누통하야 이 일이 누셜흘진티 중참이 명비하니 입이 아홉이라도 발명을 못할 거시오 죄를 줄진티 극풀노 같지라 흐물며 홍문은 오가의 천리기린이며 종수를 박들 충호 몸이라 큰 불행이 아니리오. (卷十五)

이 일은 마침내 시어사 윤혁의 上表에까지 擴大되어 예부는 綱常罪人으로 削奪官職되어 이 사건의 結末이 날 때까지 獄苦를 겪어야만 했다. 法府에서 끝내 그들의 허물을 밝히지 못하자 上은 홍문을 감사정배하고 화소저를 離移하는 것으로 그 별을 그쳤다.

신이 성지 를 맷드려 강상죄인 다흥문을 뮤른미 모총니 부효하미 업는 고로  
면은을 쳐벼릴가 쳐하 쳐주어 피육이 후란하더 효신 이래듯 하니 진가를 알길  
히 업순지라 삼가 황공티죄하누이다 상월 옥수의 관세하미 인눈의 대변이라  
짐이 통호하를 이거지 못하야 엄히 쳐치코져 헌더니 이제 천비조의 말이 이래  
듯 널열하고 흐물며 홍문은 금현하 메일 군자라 이런 더러운 일이 이시리오 이  
미호가 시브나 풍문이 고이하니 홍문은 감사정비하고 화너를 나이하여 중의시  
비를 막노라. (卷十六)

위의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때, 朝鮮朝에서는 小說이 一般 大衆에게 읽히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것이었는데 後期에 와서는 그 사정이 若干 달라지게 된 듯하다. 다시 말하면 洪吉童傳을 비롯한 九璽夢, 春香傳 등과 같은 社會的인 批判物 乃至는 愛情과 關聯되는 小說들은 如前히 禁忌의 對象이 되었지만 玄氏兩熊變態記를 비롯한 明珠奇逢, 碧虛談 關帝言錄, 嚴氏孝門清行錄, 尹河鄭三門聚錄 그리고 玩月會盟宴 등과 같

은 長篇小說들은 그것들이 모두 忠·孝·信·悌 등 倫理的인 問題를 다루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朝鮮朝 後期 指導階層의 口味에 매우 接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禁忌의 範疇에서 풀려나는 謙解를 얻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朝鮮朝 後期는 政治·經濟·文化·社會 등 여러가지 面에서 變革이 있었던 時期였기에 이러한 小說의 論理가 土庶間 한층 강조되어야만 했었는지도 모른다. 때문에 이 시기의 小說이란, 그作品의 傾向에 따라서는 一種의 教科書的인 性格까지를 內包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七. 結

以上에서 筆者는 李氏世代錄이라는 作品을, 그 連作關係, 作者에 關聯된 問題 등에 대해서 考察하는 한편 孝를 강조하고 綱常을 앞세우는 倫理的인 面도 살펴 보았다.

조선조 후기에 와서 連作小說이 새로운 장르로 登場한 것은 疑心할 나위 없는 것이지만 그 어떤 作品을 어떻게 處理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이것은 連作小說, 別傳小說 혹은 家族史小說<sup>10)</sup>등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이것에 대한 보다 本格的인 연구가 요망되고 본다.

우리나라 소설의 경우, 그 작품의 作者를 밝히지 않는 것이 한 慣習처럼 되어 있어 우리에게 많은 품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는 좀더 이 문제에 눈을 돌려 그 작품의 原作者와 額字性에 基因한 作者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작업이 早速히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한다.

조선조 후기의 長篇小說의 경우, 그 작품들의 大部分이 忠·孝·信·

10) 拙稿, 李朝連作小說研究. 서울大學校 教養課程部 論文集 (4) 1973.

李樹鳳, 李氏世代錄研究. 開新語文研究 忠北大學校 開新語文研究會 1982.

李在鉉, 韓國文學의 解釋. 서울 새문社 1981, p. 121.

悌 등을 言及하고 있는데 이 李氏世代錄 또한 그 굴레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傾向의 作品을 한 積음으로 할 때 우리는 그 主題論的 側面에서 忠孝文學을 말할 수 있겠고 또 그러한 作業도 일단은 試圖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작업에 江湖 同學의 많은 關心이 있었으면 한다.